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 4.5.6 통권 제69호 www.ksm.or.kr

화보 “함께 가시죠,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동행 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표지사진

“童心 + 同心”

아이의 웃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마음 (중국 연변, 2009. 4)



우려되는 한반도 정세

이일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아주대 의대 교수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5일에는 제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우리 당국은 곧바로 PSI 참여를 발표했으며 유엔도 대북 제재결의안으로 대응했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던 유엔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포함,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해상의 선박 검사도 가능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 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은 우리 당국의 태도에서 더욱 커져만 간다. 국방부는 최근 전군에 보낸 장관 메시지를 통해 “적의 도발시 현장지휘관이 작전을 종결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부의 분위기가 이렇다면 자칫 작은 충돌이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군의 군사력이 북한 본토에 직접 투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국지전으로 제한되었던 지난 1, 2차 서해 교전과는 달리 또 다시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간에 교전이 발생한다면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안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0세기의 비극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지금은 군대의 한 야전 지휘관에게 맡겨진 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만 봐야 하는가?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렵다고 대화와 협상을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춘궁기를 겪으면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식량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럴 때일 수록 더욱 필요하다.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남쪽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다. 자칫 차가워질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또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목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 여는 글** 03 우려되는 한반도 정세
- 화보 1** 04 “함께 가시죠,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동행 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화보 2** 06 남측의 사랑과 나눔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곳, 중국 연변에 가다
- 특집** 08 신임 공동대표단, 평양 지원 현장 방문
- 칼럼** 10 북한-미국-남한, 엇갈리는 신호들
- 연재** 12 지난 남북관계 속에 변화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고려인 지원** 14 오뉴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고그라드의 하루
- 보건의료 지원** 18 정성의학종합센터 동물실험실 기술진 평양 방문
- 기고** 20 천사들의 합창 - 중국 연변 조선족소학교 아이들과의 만남
- 사업일지** 22 한눈에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후원자명단** 24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년 4+5+6월호 통권 제69호 | 발행인 |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 편집인 | 강영식 |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 주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 전화 | 02)734-7070 | 팩스 | 02)734-8770
 ksmseoul@ksm.or.kr www.ksm.or.kr | 디자인 및 인쇄 | 인디디자인

【교문】 강문규,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 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고희선, 김영수, 김현수, 박남수, 박원철, 박준영, 윤장현, 이수구, 이용선, 정 여, 정의화, 천정배, 최대석 【감사】 김영환, 전 성 【사무총장】 강영식

“함께 가시죠,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동행 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평화와 상생의 길, 다시 시작하는 동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의 주제다.

열세살이 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걸 어오면서 대통령은 세 번 바뀌었다. 남북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도 여러번 있었다. 하지만 평화와 상생을 위한 동포애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남북 북 정상은 두 번이나 평양에서 만났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다시 시작하는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난 13년간 함께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기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초심’과 ‘동행’이기 때문이다.

6월 23일(화요일) 저녁, 행사장인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이 시끌벅적하다. 3년만에 개최된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 열추 4백명은 넘어 보이는 손님들이 행사의 시작을 기다린다.

그리고 동행은 시작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sm.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사장 전경
- ② 기념사를 낭독중인 영담 상임공동대표
- ③ 신임임원을 대표하여 인사말 중인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 ④ 창립13주년 축하 및 연대사(좌로부터 현인택 통일부장관, Brian McDOLALD 주한미대사,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비전과 5대 핵심과제’를 유심히 보는 참가자
- ⑥ 행운권 추첨중인 영담 상임공동대표(좌에서 세 번째)와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맨좌측)
- ⑦ 감사패 수여자들(국민공단보험공단, 모두하나교육회, 성남시중원구민간이어린이집연합회, 스포라스(주), (주)고려정보통신, 코리아S오케스트라, 한마음장학재단, LG디스플레이)과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촬영
- ⑧ 공로패 증정(좌로부터 강문규 고문, 김성훈 고문)
- ⑨ 동양화 당첨자 전진희님(사진좌)과 백자도자기 당첨자 김은숙님(사진우)
- ⑩ 북한방문권 당첨자 이재선님(사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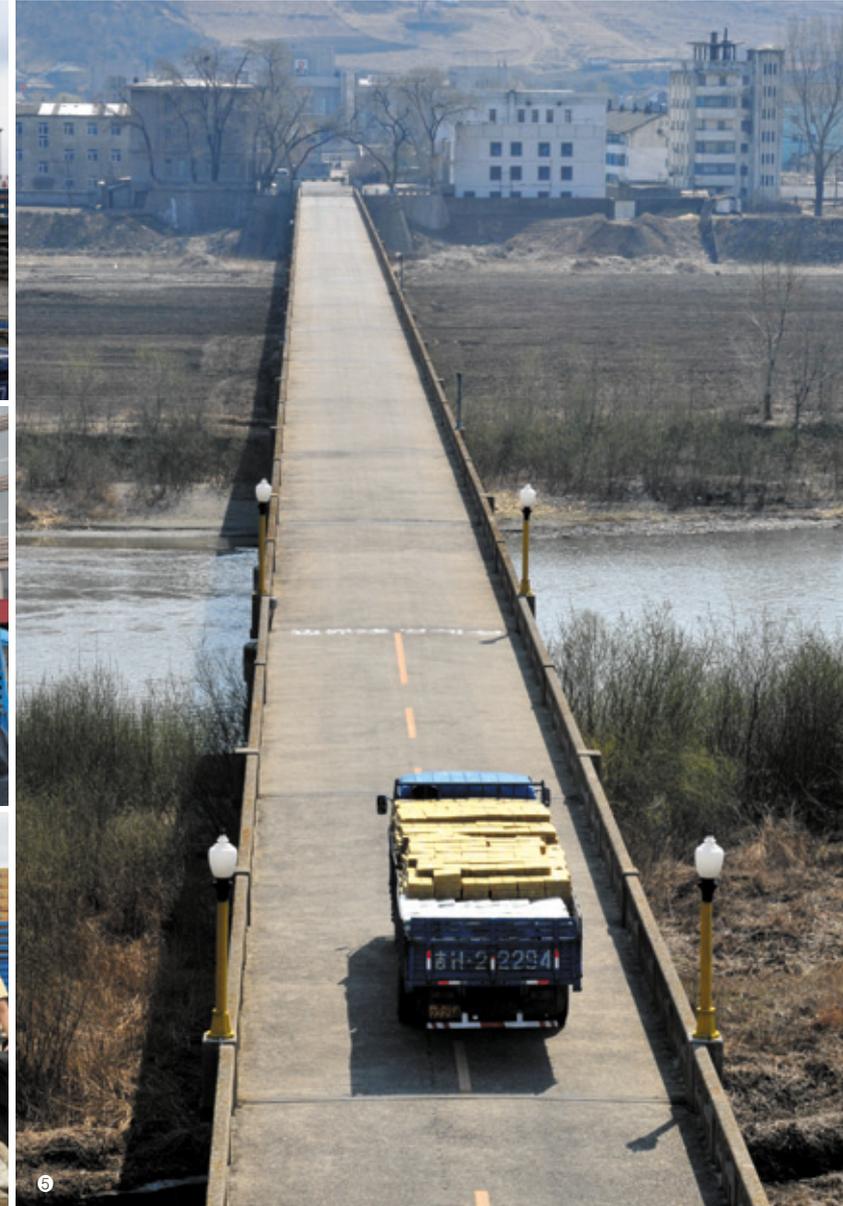


중국 연변 가다

남측의 사랑과 나눔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곳,

조-중 접경지역인 중국 연변자치주, 이곳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다. 남측에서 보낸 북한 아이들의 사랑과 나눔이 중국 연변을 통해 함경북도 온성군과 회령시 어린이들에게 전달 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 후원자와 부산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실무자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연변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2월 23일,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5곳에 지원된 아동급식 지원물자를 직접 확인 하고 중국 도문 해관(세관)을 방문하여 온성을 전달되는 과정을 참관하였다. 또한 4월 24일에는 (주)고려정보통신, 나눔재단, (주)넥스트에프엘,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후원한 교육물품을 '룡정시 동북사 조선족소학교'와 '개산툰 제2조선족소학교'에 전달하였다.



- ① 룡정시동북사조선족소학교 학생의 환영공연
- ② 북한 온성 유치원에 보낼 어린이 급식지원 물품(곡수)
- ③ 북한 온성 유치원에 보낼 어린이 급식지원 물품을 트럭에 직접 옮겨심는 방문대표단
- ④ 방문대표단의 기념촬영
- ⑤ 중국 도문 - 함경북도 온성간 국경을 넘고 있는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 물자 실은 트럭
- ⑥ 룡정시동북사조선족소학교 학생대표에게 교육물품을 전달하는 대표단
- ⑦ 교육물품 전달을 마치고 소학교 학생들과 대표단의 기념촬영



신임 공동대표단, 평양 지원 현장 방문

북측과 올해 사업을 협의하는 뜻 깊은 시간 가져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와 남측 당국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북측 역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상영 사업국장

창립 13주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 12기 신임 공동대표단이 지난 5월 20일 평양을 방문, 지난 13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해온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올해 사업에 대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협의한 후 23일 귀국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지난해 9월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및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방문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평양 방문에 동행한 대표들은 인명진 상임공동대표(갈릴리교회 담임목사)와 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최원규(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상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민주당 국회의원),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상 공동대표 등 6명이다. 사무처 실무진으로는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과 홍상영 사업국장 등 2명이 평양 방문에 함께 했다. 이외 정성의학종합센터 기술진으로 손종도 부장과 창이엔지의 노선호 대표가 일정을 같이 했다. 이번 대표단 방북의 목적은 2009년 새롭게 구성된 공동대표들이 그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한 북측의 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롭게 지원 및 협력할 분야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표단은 평양의 낙랑구역에 위치한 정성의학종합센터와 동대원구역의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그리고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있는 온실채소 사업지역을 둘러보았다. 당초에는 신축중인 남포산원 외래병동 현장과 남포시 대대리 양돈장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대표단의 남포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양과 남포를 잇는 청년영웅도로나가 공사중이라는 게 민화협의 설명이었다.

대표단이 방문한 정성의학종합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으로 수액약품공장을 비롯, 알약약품공장 종합품질관리실이 완공된 곳이다. 정성의학종합센터는 남쪽 여러 단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약품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병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04년부터 지원활동을 펼쳐온 사업장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이 곳의 신경-호흡기병동부, 회복치료과 등을 개보수하는 한편 약무병동을 신축하고 구강수술장,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등을 리모델링해왔다. 대성구역 대성동의 채소온실 설립사업은 북한 주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계절 대량으로



평양 순안공원에서 기념촬영(왼쪽부터 이종무 소장, 최대석 교수, 인명진 목사, 영담 스님, 이일영 교수, 최원규 교수, 천정배 의원)

채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온실 설치에 필요한 물자들을 1차로 지원한 상태이다.

북측의 민화협은 정덕기 부회장을 비롯하여 4명의 참사들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맞아주었다. 정덕기 부회장은 첫날 저녁의 환영 동석식사 자리에서 행한 인사말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정덕기 부회장은 이어 남북관계가 어려울 수록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방문한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와 남측 당국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북측 역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종교계와 학계, 정치인 등을 망라한 이번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는 못했다.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대표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 각계에서 거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귀국길에 전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러나 이번 대표단 방문이 비록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민간교류에 대한 북측의 의사와 향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고 그 답을 찾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북한-미국-남한, 엇갈리는 신호들

: 값비싼 신호, 애매한 신호, 잘못된 신호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올해 들어서 한반도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4월 5일에는 3,000 Km 이상을 비행한 로켓을 발사하였고, 5월 25일에는 TNT 4,000톤에 해당하는 위력을 갖는 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6월 13일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착수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데 각각 3억 달러씩, 총 6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나 어려운 식량사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왜 북한은, 자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정부가 아니라 대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이렇게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값비싼 신호 이론’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소수들이 선택하는 행동 방식에 관한 것으로, 동물이나 인간의 과시적 행동이나 요란한 선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여기서 ‘신호’가 ‘값비싼’ 것이 되는 이유는, 보통의 개체들은 이를 보낼 수가 없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소수의 개체들만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자가 사냥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영양들은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는데, 어떤 영양은 도망치지 않고 사자 앞에서 쭈뼛쭈뼛 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는 이 영양을 본 체면제 하고 오히려 도망치기 시작한 영양들을 쫓곤 한다. 왜냐하면 이 영양은 무리 중에서 가장 잘 뛰는 영양이기 때문이다. 달리기에서 가장 뛰어난 영양은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쭈뼛쭈뼛 뛰면서, “나는 늦게 뛰어도 안 잡힐 정도로 잘 달릴 능력이 있다”고 사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값비싼 신호’를 통해서, 잘 달리는 영양은 고생하면서 힘들게 땀 필요가 없고, 사자도 가장 잘 뛰는 영양을 상대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작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는 보도 이후, 국내에서는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현 정부가 북한을 길들이겠다고 1년을 넘게 ‘북한 무시 정책’을 펼친 것도, 결국은 북한이 식량난과 체제 불안정으로 남한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로켓 및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는 미국과 남한에 매우 ‘값비싼 신호’를 보냈다. 즉, 자신들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끌기를 하면, 결국 자신들의 핵능력 및 미사일 발사 능력이 강화될 뿐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북한이 금년 3월에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식량 50만 톤 중 30만 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자신들이 다시 식량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값비싼 신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애매한 신호(Ambiguous Signaling)와 남한의 잘못된 신호(Wrong Signaling)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되었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매우 성급하고 모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이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내는 ‘값비싼 신호’에 대해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제재를 추진하였지만,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고, 이번 안보리 결의안(1874호)도 북한 대외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실제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다른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원칙적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행동으로 묻고 있는데 미국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의 잘못된 신호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더 늦기 전에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의 인정과 PSI의 탈퇴를 천명하고, 고위급 특사의 파견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제안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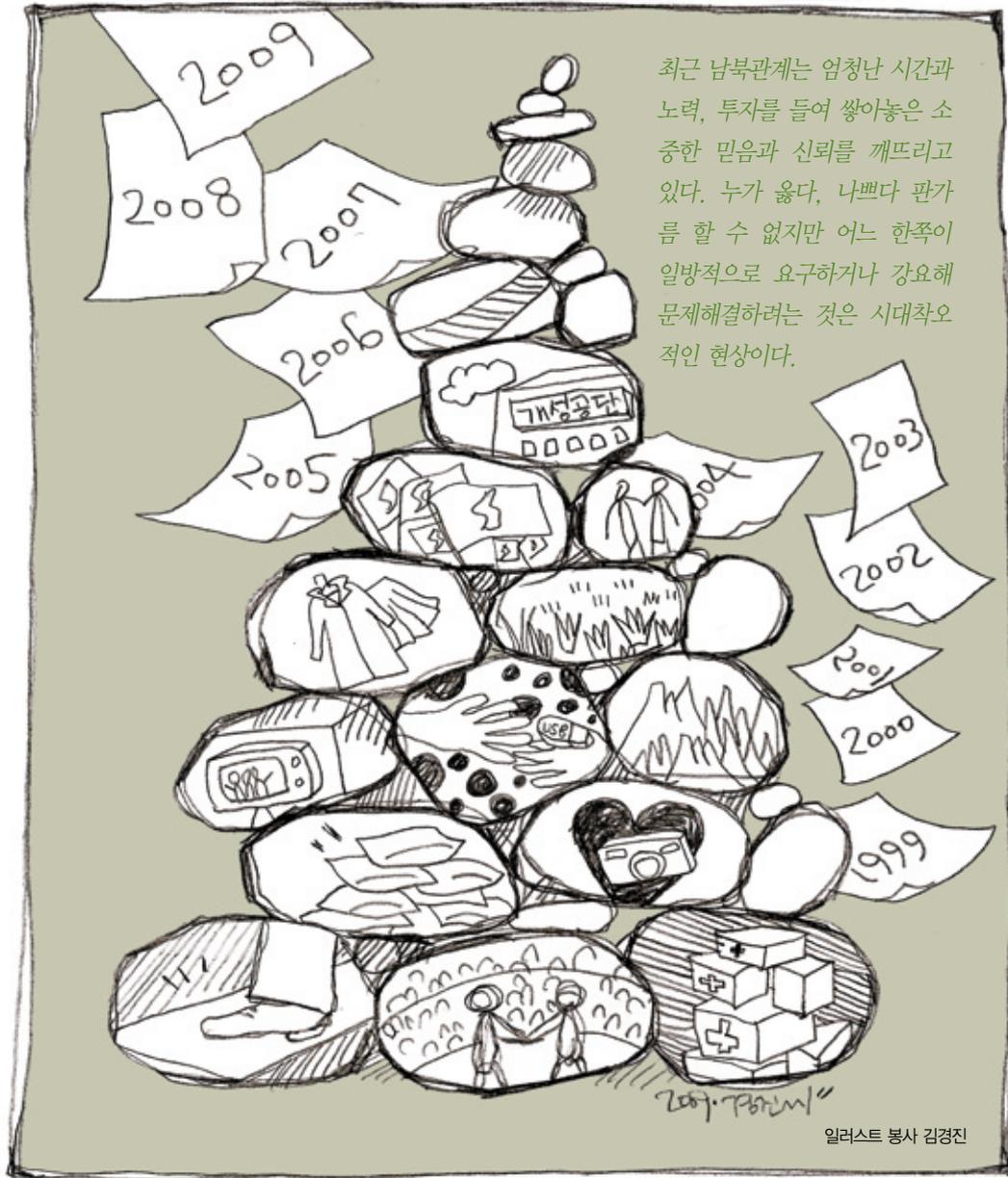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PSI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북한이 해안포 및 미사일을 이용해서 NLL(서해북방한계선)에서 도발을 할 경우에 공군력(F15K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북한의 발사지점을 타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기습상륙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해병대 병력을 증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을 불사한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전쟁으로 치닫는 말! 말! 말!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언사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이제 남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엄청나게 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 마치 어른이 초등학생과 싸우는 것만도 못한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재래식 전력의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이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인질로 무모한 전쟁 놀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듯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심한 불안 속에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지혜롭게 평화적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의 인정과 PSI의 탈퇴를 천명하고, 고위급 특사의 파견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제안해야 할 것이다. 🇰🇷



지난 남북관계 속에 변화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정민숙 새터민, 가명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천만 한 소식들은 남북관계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 가는 것 같은 분위기다.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슬픔의 눈물바다에 잠겨있다. 마음속에는 내내 10.4선언 발표 당시 대통령의 인자한 모습이 안겨와 더 가슴 아프게 한다. 2007년 남과 북 정상들의 만남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그은 노란선을 통과하면서 찻찻한 심정으로 '이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민족을 갈라놓은 장벽'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수 십 년간 <철천지원수, 미국의 앞잡이>로 중요해왔던 남한 대통령이 북조선을 방문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평양시민들은 정말로 놀랐다. 그 뒤 '대한적십자사' 글씨가 찍힌 남한 쌀 포대는 북한사람들에게 한 동포라는 인식을 새삼 각인시켰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리 모여 남한의 경제발전수준 비롯해 다양한 정치이슈, 드라마 이야기로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대량아사가 한창이던 때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 남한에서 지원해준 긴급식량과 의료약품·장비는 최악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경제적인 것만 아닌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북한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류열풍이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청년들 속에서 일지바지, 드라마 속 주인공을 연출하는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비롯해 각종 전자기기들에 대한 인기가 봄을 이뤘다. 최근에는 남한의 생활가전 선호도가 매우 높아 신혼살림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남편은 이를 보장해주어야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는 시대에 왔다. 젊은 남자들은 처녀들에게 남한엠펙쓰리 정도는 기본으로 선물해야 하는 줄 안다. 컴퓨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정보욕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정보들을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몰래 저장해 가지는 등 남한의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다양한 정보를 암암리에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는 것이 추세이다. 패션과 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 요즘 북한여성들이다.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빈곤층 있는가 하면 남한에서 사는 우리들도 감히 생각 못하는 비싼 옷을 구입하는 젊은층이 있고는 성형도 인기가 있다. 여름철에는 특히 남한의 모시적삼이 북한남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햇볕정책은 의도야 어찌되었던 1만 8천명에 가까운 탈북자를 남한사회에 받아들이는 민족의 대이동을 예고했다. 오늘날 북한사회의 한쪽 바퀴를 굴릴 수 있는 동력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막대한 돈이며 이 돈은 수만, 수십만의 북한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남한사회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비롯해 남북한의 크고 작은 경제협력은 북한사람들에게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남한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주었고 남한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사람과 사람간의 정을 이어주고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 동질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만큼 남북관계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북한의 주민들은 농사철이 다가오면 으레 남한에서 비료를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한주민들은 북한 어린이돕기를 비롯해 의료 지원 및 식량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투자를 들여 쌓아놓은 소중한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누가 옳다, 나쁘다 판가름 할 수 없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해 문제해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다. 지금 북한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에 대한 선전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 정부는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 매국역적도당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남한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철저히 버려야 하며, 노예적인 삶을 강요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북한사람들도 남한사회에 대한 감정들이 서서히 추락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탈북자들도 "공든 탑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다. 수 십 년 한가마 밥을 먹고 살아온 부모형제도 조금만 멀어지면 남이 되는 남한현실에서 반세기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정치구조에서 살아온 남북한이 10년이란 짧은 기간의 교류협력으로 이해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정치체제, 어떤 이념을 막론하고 한민족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제라도 힘들게 쌓아놓은 공을 허물지 말고 남북한 간에 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하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상호간 이해를 돕고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상생공영의 관계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 🌱

정민숙님은 2004년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 64호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볼고그라드의 하루

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구 스탈린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는 고려인 동포 지원을 위해 실무자 2인(이복철 부장, 정유정 간사)이 현장에 파견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보내 온 소식을 실었다.

정유정 해외사업팀 간사

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태양의 열기와 함께 저녁 9시가 되면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 볼고그라드의 정유정 간사입니다. 지난 5월 20일, 볼고그라드행 비행기를 탔으니 어느덧 이곳에서 생활한지도 벌써 3주가 흘렀네요. 작년 5월 첫 출장차 왔었을 때는 튜립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었고, 10월에 있었던 제7회 고려인 축제 행사 때에는 가을과 겨울이었고, 올해로 세번째 출장인 지금은 여름 길목에 들어서고 있으니 제법 볼고그라드의 사계절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곳은 제 8회 고려인축제와 부산대학교 자원봉사단, 제2시설영농단지 인프라구축 작업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될 34명의 부산대학교 자원봉사단 맞이하는 준비로 매주 고려인동포청년모임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일정이 끝나면 8월 15일에 맞춰 제 8회 고려인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자원봉사단 준비와 동시에 축제준비 작업으로 볼고그라드 주정부 및 시정부, 타민족 대표회의, 고려인 마을 대표자회의 등의 일정이 빽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에서 회의나 미팅 일정이 없는 날이면 레닌스키 농장으로 이동합니다. 불가강을 건너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달리면 제2시설영농단지인 레닌스키 농장에 도착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레닌스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수입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와 지하수, 울타리, 막사, 화장실, 샤워장 등 기본적인 인프라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비닐하우스 설치작업만 남아있습니다. 레닌스키 농장의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비닐하우스 25동, 육묘장 2동, 컨테이너 교육장 2동의 시설을 갖추어서 최소한의 운영의 자립기반은 갖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포들에게 시설농업 이론 및 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현지 볼고그라드 국립농업대학교와 동포들이 참여하는 시설농업연구, 실습 및 세미나 등의 내용으로 협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고그라드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Volgograd 1 | 부산대학교 자원봉사단 사전답사팀이 볼고그라드를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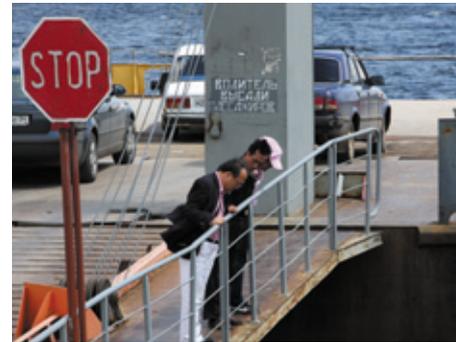
지난 5월24일, 부산대학교 자원봉사단 사전답사팀이 볼고그라드를 방문했습니다. 봉사단을 파견하는 부산대학교도, 봉사단을 맞이하는 사무실도, 또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고려인들도 모두가 처음해보는 일이라 14박15일간의 전체 프로그램 공유와 현지상황 설명 및 부산대학교 측의 사전준비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왼쪽부터 이복철 부장, 부산대학교 학생과 처장, 대외협력담당 김포트리, 통역 전송범, 정유정 간사(노란색 뒷모습)



레닌스키와 빠리몰스키로 이동하기 위해 불가강 건널 채비 | Volgograd 2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레닌스키와 빠리몰스키로 이동하기 위해 불가강을 건널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분마다 불가강을 건너는 배가 있는데, 한 발 차이로 배를 놓치면 꼼짝없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15분 정도 걸리고요, 배에서 내려 레닌스키까지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제2시설영농단지이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레닌스키 농장에 도착합니다.



Volgograd 3 | 부산대학교 자원봉사단 사전답사팀이 볼고그라드를 방문

레닌스키 농장입니다.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있는 분이 레닌스키 농장일을 하고 있는 황 슬라브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시설농업연수를 받기도 했지요. 뒤로 보이는 정갈하게 갈아놓은 밭이 비닐하우스를 지을 곳이고요. 7,8월이면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한 동, 두 동씩 지어져있겠지요. 대학생들이 이곳에 오면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도와주면서 고려인들과 함께 농활체험을 할 것입니다.

왼쪽부터 부산대학교 학생과 처장, 정유정 간사, 통역 전송범, 레닌스키 농장의 황 슬라브, 이복철 부장



토마토 농장에서 농활체험 | Volgograd 4

레닌스키에 이어 두 번째로 노력봉사할 빠리몰스키입니다. 빠리몰스키는 레닌스키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에 고려인 농장이 있습니다. 유가미론 아저씨의 토마토 농장에서 농활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맨오른쪽 유가미론 아저씨



Volgograd 5 | 끝이 안보이는 밀밭에서

레닌스키에서 뿌리몰스키로 이동하는 길에 끝이 안보이는 밀밭에서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왼쪽부터 통역담당 전승범, 부산대 학생과 처장, 이복철 부장, 정유정 간사



싸사와 슬라브가 생활하는 농장 막사 | Volgograd 9

지금 수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농장 막사입니다. 이곳에서 싸사와 슬라브가 생활하고 있고요. 이 막사 뒷편에 바로 샤워장이 있고 앞쪽에 있는 컨테이너 지나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나무그늘 하나없는 발인지라 막사 내부 또한 뜨거운 찜통입니다.

데까 가가리나 문화회관 | Volgograd 6

이곳은 “데까 가가리나”라는 크라스나르 악짜브리 라이온에 있는 문화회관입니다. 볼고그라드 사무실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고려인들과 러시아 아이들, 타민족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8월 15일 고려인 축제도 이곳에서 할 예정이고요. 외관은 낡고 허름하지만 안은 외부와는 다르게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꾸민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영광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Volgograd 10 | 기진맥진 힘이 빠져서 시원한 바람에 잠시 쉬는데

파이프 자재들을 절반도 채 옮기기 전에 기진맥진 힘이 빠져서 시원한 바람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때는 햇빛은 뜨거워도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에 일하기가 수월했었는데, 지금은 모스키프라고 불리는 모기보다는 작지만 온 몸에 달라붙어서 물어대는 벌레 때문에 한창 고생합니다. 이곳 사람들도 다음주 부터 한 열흘 동안 모스키프 때문에 집을 비운다고 합니다. 한 이주일 정도 극성을 부리다가 괜찮아진다고 하니 당장에 할일이 많은 레닌스키 농장 일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Volgograd 7 | 볼고그라드 국립농업대학교 방문

부산의 학생들이 와서 농업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을 할 예정이어서 볼고그라드 국립농업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부산대학교와 농업대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기숙사 임대 및 향후 두 대학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대 측의 편의를 제공하며, 향후 부산대와 교류 협력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II BK(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 고려인동포들과 함께하는 시설 농업연수 및 교육,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려인동포청년들의 모임 | Volgograd 11

올해 이곳에 와서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 바로 고려인동포청년들의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각자 교회나 한글을 배우는 학교 단위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우리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레나가 중심이 되서 청년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부산대학교 자원봉사팀과 고려인 축제준비 때문에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모습이지요?

제2시설 영농단지가 들어설 레닌스키 농장 | Volgograd 8

이곳은 볼고그라드 사무실에서 약 100km 떨어진 제2시설 영농단지가 들어설 레닌스키 농장입니다. 회의나 대외미팅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와서 농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분과 우리민족조끼를 입고 계신 분이 현재 이곳 농장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인 이 싸사와 황 슬라브입니다.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자재를 확인하고 생소한 기계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농업사업 뿐만 아니라 한글교실, 고려인축제, 다양한 문화활동 등에 대하여 현지 사회에서 갖는 관심도나 고려인들의 참여도, 인지도 등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고려인 동포청년들의 모임도 기반을 다져가고 있어서 향후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 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시설농업사업 뿐만 아니라 한글교실, 고려인축제, 다양한 문화활동 등에 대하여 현지 사회에서 갖는 관심도나 고려인들의 참여도, 인지도 등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고려인 동포청년들의 모임도 기반을 다져가고 있어서 향후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 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볼 짧은 지면으로 볼고그라드의 일상을 담아내기엔

동물실험실은 정성의학종합센터에서 생산하는약품 제제의 안정성 등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제제연구와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비임상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실은 넓이 315㎡에,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실, 약리실험 연구실 등으로 구성된다.

정성의학종합센터 동물실험실 기술진 평양 방문

5월 20일~23일, 동물실험실 설계 관련 협의 마치고 귀국

손종도 남북협력사업2팀 부장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성의학종합센터 동물실험실 설치를 위한 기술진 방문이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기술진 방문은 지난 3월의 품질관리실 분석기기 설치와 사용법 교육을 위한 평양 방문에 뒤이은 것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동물실험실 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위한 것이었다.

국내의 제약공장 엔지니어링 업체로, 정성의학종합센터 수액약품공장 건설 당시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정성의학종합센터와 인연을 맺어온 (주)장이엔지의 노선호 대표와 필자 등으로 기술진은 단출하게 구성됐다. 기술진은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제12기 신임 공동대표단과 평양 방문을 같이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한의 정성의학종합센터에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9년이 됐다. 당초 정성제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제약과 관련한 작은 연구소에 지나지 않았던 이곳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으로 GMP 규정을 적용한 수액약품공장이 건설되고 알약품공장이 마

무리된 후 정성의학종합센터로 승격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어 작년에는 정성의학종합센터 내에 종합품질관리실도 완공을 했다. 올해 시작하는 동물실험실 건설은 이러한 제약공장 지원사업의 연계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물실험실 건설을 통해 정성의학종합센터는 약품 생산에서 품질관리, 기초적인 약품 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 내에 보유하게 됐다. 정성의학종합센터는 벌써 수년 전부터 종합적인 제약공장으로 발돋움한다는 발전 전략을 피력해 왔다. 올해 건설될 예정인 동물실험실은 정성의학종합센터에서 생산하는약품 제제의 안정성 등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제제연구와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비임상 시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실은 넓이 315㎡에,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실, 약리실험 연구실 등으로 구성된다.

동물실험실 건설 방식과 관련, 우리 기술진은 이전에 제안했던 철골조와 외부판넬 대신 외부면의 조적 방식(습식 공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안은 건축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감된 예산은 내부 시설과 분석 설비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측에서는 협의 초반에 철골조를 이용한 공사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으나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부면의 조적 방식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정성측에서는 대신 건물 디자인을 특색있게 하는 한편 내부 시설과 설비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남쪽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면을 정성측에 전달키로 했으며 정성에서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기초공사와 외부 벽면의 공사를 우선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기술진과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수액약품공장 알약품공장, 품질관리실 등을 둘러보고 동물실험실이 들어설 부지를 확인했다. 수액약품공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액 약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알약품공장은 바닥의 에폭시 보강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성은 또 수액약품공장 뒤편에 대규모 창고를 짓고 있기도 했다.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성원, 중국에서 GMP 교육 받다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의 성원 10명이 중국에서 GMP 공장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통일부 정책사업의 하나인 원료의약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을 맡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GMP 생산공정과 품질경영관리체계, 원료 투입에서 출하까지의 관리와 검사 체계, 품질관리 실습 등으로 전반부 15일간은 중국 각지의 제약공장을 돌아다니

면서 참관하고 후반부 10일간은 북경에 소재한 한미약품에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약 공장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기술 교육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수액약품공장 건설 당시 정성 성원들의 중국 제약공장 시찰을 주선하는 한편 남쪽 제약 전문가가 평양 현지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도 이러한 기술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향후 남과 북의 제약 전문가 간담회 등 제약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국제 기준

정성의학종합센터 전경





필자 - 맨뒤 좌측

천사들의
함성

중국 연변 조선족소학교 아이들과의 만남

백영미 (주)고려정보통신 대리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연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소 개소와 중국 연변 조선족소학교 교육물자 전달, 함경북도 온성 아동급식 지원 물자 전달 참관을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였다. 이 번호에서는 3박4일간의 연변방문에 함께한 (주)고려정보통신 백영미 대리의 글을 실었다



소란스런 아이들의 웃음이 들려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밀려오면서 우리들의 눈앞에 등장했다. 아니 나타났다. 우리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작은 손과 몸과 발을 가진 아이들이 3층으로 우르르 몰려오며 참새와 같은 소리가 교실안을 가득 메웠다. 처음에는 서로를 신기해하며 우리와 아이들의 처음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교육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몽정시 동불사 조선족 소학교'에 방문하면서 부터다.

참가단을 환영하기위해 마련한 아이들의 공연에서 나는 한아이의 눈동자에 매료 되고 있었다. 눈동자는 검고 유난히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남자아이였다. 웃을 때 마다 드러나는 뺨에 동그란 얼굴, 불터치 한 듯 발긋한 양 볼에 짧은 까까머리 꼬마 경험이다. 아홉 살 경험이는 궁금한 것이 많은지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물어보는 것이 많았다. 나 또한 경험이의 까만 눈동자에 귀엽고 수줍은 모습의 이끌림으로 많은것을 물어보았다. 수업은 몇시에 끝나는지? 집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집에서는 누구랑 지내는지? 경험이는 걸모습과 다르게 능숙한 사투리로 어른스럽게 대답해주었다.

"2시쯤 끝나고 집에서 숙제하고 TV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삽니다"

경험이의 말에 뒤질세라 같은 또래 한아가 "너네집에 TV도 있나?"며 끼어듭니다. 그 아이의 돌발질문에 서로 쳐다 볼 뿐 잠시 말을 잊었지만 바로 서로의 궁금한 것에 대해 또 묻기 시작했다. 아니 일방적 질문이었다. "우리가 어데서 온 줄아니? 집은 여기서 가깝니?" 그때마다 경험이의 눈동자는 더욱 바빠 움직였고 우리에게 살짝 살짝 대답해주었다. 그래도 난처한 기색은 없었다. 아이들의 환영 공연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몸놀림과 경쾌한 웃음소리는 4월 끝자락 연변 추위를 따뜻함으로 덮히고 있었다.

참가단은 2시간정도의 행사를 끝으로 학교 교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경험이와는 경험이가 수업을 받는 교실안에서 짧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복도 중간에 걸어놓은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착각에 빠지는 듯 했다. 그것은 작은 충격이었다. 아이들의 순박한 모습 뒤로 그 아이들의 고단한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현실에 가

슴 한편이 저러왔다. 모든 것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화장실에 들어서서 것이 이리도 용기를 필요로 해야만 하는지, 경험이 친구인 듯한 아이가 물어본 TV있느냐는 물음이 생각나 나는 입가에 미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할 때 가졌던 천진무구한 친구들의 표정과 울동들에서 오는 미소와 웃음은 어딘지 모를 미안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예정된 이별 앞에서 더욱 안타깝기만 했다. 너무도 낯익고 소박했던 환영식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오를 때 아이들의 이별하고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우리들은 서로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야기로 버스 안이 다시 시끌벅적해졌고 버스는 예정 데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버스가 학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련히 남는 감정들을 옮길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 뒤로 학교 시설이 너무도 열악함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곳 아이들의 대부분이 결손 가정(외지로 돈을 벌기위해 부모가 떠나있는 가정) 혹은 조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가정환경에 있다고 한다. 부족함 없이 자란 우리에게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이혼률 급증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생계를 위해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국생활을 하고 있기에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수가 적다고 입을 모으고 말한다. 경험이의 경우처럼 가족 모두 같이 지내는 학생들은 여기에선 흔치 않는다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남는다. 학교에 교육물품을 전달해주고 아무생각 없이 관전만 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마냥 부끄럽고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심정이었다. 이내 한국에서의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작은 것들에 많은 감사를 표하며 살겠노라 다짐해 보고 천사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게 했다.

모든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은 처음 무거웠던 마음가짐과 달리 배움이 컸던 여행이라 우리는 모두 입을 모았다. 이기심이 많은 세대라는 오명을 쓴 채 살아가는 30대 인생인 나에게 연변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선물을 준듯하다. 한 뿌리를 둔 한민족이 있음에도 모른척하며 살아온 인생에 부끄러움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전환점이 되어 변화된 일상을 꿈꾸고 예전처럼 동떨어진 행복만을 추구하진 않을 것을 감히 약속 하게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월



- **13일** - 평안북도 룡천군 육아원, 신의주 애육원, 신의주 육아원, 동림중등학교, 삭주군 이부모학원, 염주군 양생원에 1,100만원 상당의 콩기름, 학용품 지원
-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유치원,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왕재산리 유치원, 농장 유치원, 종축장 유치원의 2,300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 **20일** 평양 사동구역 벵농사협력사업을 위한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지원(인천-남포)



- **22일** 중국 연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소 개소 및 함경북도 온성 아동급식 물자지원 참관을 위한 대표단 중국 연변방문(16명)



- **23일**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유치원,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왕재산리 유치원, 농장 유치원, 종축장 유치원의 2,300명에게 85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 **27일** 평화나눔센터 제 39차 정책포럼
주제 :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

- **29일** 4월 상임위원회 회의

5월



- **16일** 평양 사동구역 평양폐지공장 신축 양돈장 건설을 위한 제1차 기술진, 온실(3,000평) 건설을 위한 제2차 기술진 방문(5명)



- **20일** - 신임 공동대표단 사업 현장 방문 및 사업 협의를 위한 평양 방북(8명)
- 정성의학종합센터 동물실험실 기술진 방북(2명)



- **27일**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유치원,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왕재산리 유치원, 농장 유치원, 종축장 유치원의 2,300명에게 850만원 상당의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 **29일** - 개성시 개풍군 개풍양묘장에 전달하는 비료, 농약, 양묘용기 등 물자 지원
-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을 위한 1차 말라리아 방역 물자 전달(개성육로)

6월



- **3일** 제62차 공동대표 회의



- **18일**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회밤 / 부산 코모도호텔1층 그랜드볼룸

- **2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밤
일시 : 2009년 6월 23일(화) 오후 6시
장소 :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



- **25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기자간담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26일**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을 위한 2차 말라리아 방역 물자 전달(개성육로)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 4월, 5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복덕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3월	구수영 10,000	김민성 10,000	김은혜 10,000	나선길 10,000	박복영 10,000	변진옥 5,000	안영숙 5,000	윤영복 5,000	이옥순 10,000	임병수 20,000	정지현 10,000	최은서 5,000	김지연 5,000
	구영주 10,000	김민재 10,000	김은희 10,000	나원연 20,000	박상권 10,000	봉미란 10,000	안정식 30,000	윤용근 10,000	이용근 10,000	임병철 10,000	정진영 10,000	최재천 100,000	김화정 5,000
(주)대우파티백 20,000	구은경 10,000	김방규 10,000	김용상 10,000	나원연 20,000	박상용 150,000	서기원 30,000	안정훈 5,000	윤재희 10,000	이용서 10,000	임상원 20,000	정찬광 10,000	최정길 30,000	나선경 5,000
(주)모아나 20,000	구종모 10,000	김병구 5,000	김의곤 10,000	나은우 20,000	박상욱 50,000	서동구 5,000	안종금 5,000	윤종희 10,000	이용암 5,000	임선영 10,000	정천우 10,000	최정희 10,000	방철호 20,000
(주)삼성퍼워임팩트릭 20,000	국민호 20,000	김병규 10,000	김인선 10,000	나중문 20,000	박상일 20,000	서동화 20,000	안현주 20,000	윤창원 10,000	이용호 10,000	임성수 10,000	정대규 5,000	최주리 10,000	선봉규 5,000
	권병오 10,000	김병균 10,000	김일성 100,000	남상돈 10,000	박상현 10,000	서명호 10,000	안형재 100,000	윤창섭 10,000	이원호 10,000	임세진 10,000	정하영 10,000	최진욱 10,000	신혜정 10,000
(주)세진산업개발 20,000	권보희 10,000	김병수 10,000	김일환 10,000	남세현 5,000	박선숙 5,000	서성길 10,000	양관승 20,000	윤창원 10,000	이원보 10,000	임재민 20,000	정현성 5,000	최진원 10,000	심한용 10,000
	권숙희 5,000	김병준 50,000	김정현 5,000	남세현 5,000	박성기 20,000	서영학 10,000	양대승 10,000	윤창하 1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홍삼 10,000	최태자 5,000	이한결 10,000
(주)신도메이타통신 10,000	권승언 10,000	김보경 10,000	김정훈 10,000	남정현 10,000	박성준 10,000	서욱주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20,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최희승 10,000	장현경 5,000
	권오준 20,000	김보연 5,000	김재광 5,000	남관숙 10,000	박성찬 10,000	서정숙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추승기 3,000	장극철 10,000
(주)여행이아기 10,000	권오훈 10,000	김보연 5,000	김재광 5,000	남관숙 10,000	박성찬 10,000	서정숙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정지연 10,000
(주)지담종합건축사 20,000	권자숙 20,000	김상근 20,000	김재혁 10,000	남인선 20,000	박수진 10,000	서희정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조두형 10,000
	권자현 10,000	김상길 10,000	김재혁 10,000	남정환 20,000	박 순 10,000	서희정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최준혁 10,000
(주)창이엔지 10,000	권철성 20,000	김상득 20,000	김 정 10,000	남제수 10,000	박순성 10,000	서정희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하소민 5,000
(주)한얼 50,000	권현우 5,000	김상식 10,000	김정미 10,000	남준봉 5,000	박애스더 50,000	서정희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김복조 5,000	김강진(덕점주) 10,000	김상용 20,000	김정민 10,000	남해라 10,000	박영근 20,000	서정희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경중 20,000	금강LFB 50,000	김상운 5,000	김정운 10,000	다물홍방 100,000	박영철 10,000	소중섭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경현 10,000	금휘식 30,000	김석진 10,000	김정환 30,000	도재영 10,000	박오순 10,000	손경임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남준 10,000	길기관 10,000	김석항 50,000	김정희 10,000	동이교회 20,000	박용권 20,000	손경환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달호 10,000	김기수 10,000	김석항 50,000	김종구 5,000	류병욱 10,000	박우경 10,000	손광우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대영 500,000	김갑식 30,000	김선매 10,000	김종구 10,000	류영선 130,000	박원규 10,000	손덕현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동완 20,000	김강민 30,000	김선영 5,000	김종문 20,000	류용성 5,000	박활상 1,000,000	손영주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문구 50,000	김강훈 10,000	김선창 10,000	김종수 10,000	류이근 10,000	박은하 5,000	손진책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보향 10,000	김경재 10,000	김설자 10,000	김종식 30,000	류재훈 10,000	박의용 10,000	손총렬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선미 5,000	김경태 10,000	김성봉 40,000	김종현 10,000	류정민 3,000	박이현 20,000	송경민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성부 10,000	김경하 10,000	김성수 10,000	김종혁 10,000	류중현 5,000	박인숙 10,000	송두현 3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성구 10,000	김경화 5,000	김성수 5,000	김주태 5,000	류현선 10,000	박재욱 10,000	송상용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승현 20,000	김계순 10,000	김성현 10,000	김주학 10,000	리길재 20,000	박재민 10,000	송상용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신 10,000	김계순 5,000	김성재 20,000	김종모 10,000	마경화 20,000	박정근 50,000	송상원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옥경 10,000	김관식 20,000	김성재 20,000	김준석 20,000	마승대 10,000	박정만 10,000	송영환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익범 10,000	김광아 20,000	김성철 10,000	김준현 100,000	목우승 5,000	박정숙 10,000	송은학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정미 5,000	김광일 10,000	김성희 5,000	김중수 10,000	문경수 20,000	박정자 10,000	송은지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정음 10,000	김광진 10,000	김소영 10,000	김중호 30,000	문경순 5,000	박종길 10,000	송재용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준구 10,000	김구열 10,000	김소희 10,000	김지나 10,000	문근영 5,000	박종욱 10,000	송재은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채원 10,000	김구현 10,000	김수경 10,000	김준우 20,000	박중순 5,000	박중순 20,000	송재천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태임 5,000	김근우 30,000	김수암 10,000	김진백 10,000	문미영 5,000	박종필 10,000	송재천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태호 20,000	김금순 이호준 50,000	김순옥 10,000	김진백 20,000	문병희 5,000	박주현 5,000	송정배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필희 5,000	김금평 25,000	김순한 10,000	김진현 10,000	문성권 10,000	박지연 20,000	송정호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해경 10,000	김기용 30,000	김신희 10,000	김진현 9,000	문수정 20,000	박지용 15,000	송자섭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강혜영 10,000	김기현 10,000	김양수 10,000	김창근 10,000	문영식 5,000	박지훈 30,000	송현태 3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간이네가족 30,000	김기은 50,000	김양모 20,000	김창모 10,000	문영식 10,000	박정자 20,000	송희진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경진TRM 20,000	김기판 10,000	김영미 10,000	김태석 10,000	문은철 10,000	박창일 10,000	송기훈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계룡성로교회 50,000	김길자 20,000	김영수 10,000	김태순 20,000	문정숙 10,000	박현경 5,000	신대길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권식 20,000	김나홍 5,000	김영실 20,000	김태우 10,000	문정호 10,000	박형근 10,000	신동서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기철 10,000	김 당 10,000	김영주 10,000	김학경 10,000	문정호 10,000	박형중 10,000	신동해 5,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경진 10,000	김대관 10,000	김영표 10,000	김학성 10,000	문주연 10,000	박혜영 50,000	신상문 5,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봉근 10,000	김대영 10,000	김영호 5,000	김학신 10,000	문형국 10,000	박희순 10,000	신수익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상일 5,000	김대명 5,000	김원배 20,000	김학진 10,000	문 흥 10,000	박희운 10,000	신용철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석주 10,000	김덕수 10,000	김용덕 30,000	김해중 5,000	민항석 10,000	박지범 10,000	신준석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성훈 5,000	김도규 20,000	김용현 10,000	김현호 10,000	민현주 10,000	박은세상 45,000	신진현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세량 10,000	김동광 10,000	김용희 5,000	김현성 10,000	민경관 10,000	방양수 10,000	신진호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수석 10,000	김동근 10,000	김용희 5,000	김현준 30,000	방기호 20,000	방재만 5,000	신창주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승일 20,000	김동분 50,000	김우영 20,000	김현준 10,000	방남용 50,000	방준일 10,000	신현창 1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정희범 10,000	표항수(산재) 이홍대 20,000	
고승진 10,000	김동현 10,000	김우전 10,000	김현철 10,000	방덕환 10,000	배대환 10,000	신홍수 20,000	양대승 10,000	윤창철 20,000	이원욱 5,000	임재민 10,000			

후원자 명단

이현재	10,000	김학제	10,000	이영휘	5,000	홍성각	10,000	구국모	10,000	김병준	50,000	김종식	30,000	민항석	10,000	백낙서	10,000	양관승	20,000	이강기	50,000	이원욱	5,000	임옥현	10,000	정해문	10,000	
이혜경	10,000	김형구	5,000	이용범	10,000	홍성근	20,000	구수경	10,000	김보연	5,000	김종현	10,000	민현주	10,000	박학순	5,000	양근성	10,000	이강희	5,000	이유덕	20,000	임완민	20,000	정홍상	10,000	
임민희	10,000	김형소	20,000	이용연	10,000	황금철	20,000	구수영	10,000	김상수	5,000	김중혁	10,000	박기호	20,000	변신애	10,000	양대수	10,000	이경미	5,000	이윤상	5,000	임인호	10,000	정화범	10,000	
장병식	10,000	김호식	10,000	이윤관	5,000	황병규	10,000	구영주	10,000	박남용	20,000	김주태	5,000	박남용	50,000	변진욱	5,000	양문수	10,000	이경재	10,000	이윤환	10,000	임재원	5,000	조갑식	10,000	
정동혁	10,000	나정현	10,000	이점윤	10,000	황영승	10,000	구은경	10,000	박덕환	10,000	김주학	10,000	봉미란	10,000	김미란	10,000	양미아	20,000	이광희	10,000	이흥세	10,000	임재민	10,000	조대엽	20,000	
정성희	5,000	남궁진석	5,000	이정식	10,000	황현택	20,000	구중보	10,000	박동우	5,000	김준모	10,000	서기원	30,000	서기원	30,000	양미화	5,000	이광재	10,000	이인덕	10,000	임재연	20,000	조대용	5,000	
정수준	5,000	남상기	10,000	이종문	10,000			김민호	20,000	박동호	50,000	김준석	20,000	서동우	5,000	서동화	20,000	양순환	10,000	이규림	5,000	이인배	20,000	임정애	10,000	조매경	5,000	
정이훈	10,000	남청강	10,000	이종민	10,000	우리동포		권병오	10,000	박영기	10,000	김중수	10,000	서동화	20,000	서동화	20,000	양우성	10,000	이규봉	10,000	이인수	10,000	정광준	10,000	조석희	10,000	
정후진	10,000	류희웅	10,000	이종성	10,000	강성구	30,000	권보미	10,000	박무영	10,000	김중호	30,000	서명호	10,000	서명호	10,000	양윤정	2,000	이규설	5,000	이일선	10,000	장갈수	5,000	조선영	10,000	
조은상	30,000	문용식	5,000	이주형	5,000	박선우	30,000	김석진	5,000	박문식	30,000	김지선	20,000	서성길	10,000	서성길	10,000	양인보	20,000	이근덕	30,000	이일섭	5,000	장문호	5,000	조선욱	10,000	
조은희	20,000	문태환	5,000	이지용	5,000	이용선	50,000	김석항	50,000	박미란	10,000	김진미	10,000	서영학	10,000	서영학	10,000	양주용	10,000	이근태	10,000	이일영	50,000	장민환	30,000	조성규	10,000	
조영아	20,000	민총기	10,000	이진택	10,000	이재현	100,000	김선배	10,000	박미화	10,000	김진백	10,000	서옥주	20,000	서옥주	20,000	양진선	5,000	이근행	10,000	이장백	20,000	장사익	10,000	조성호	20,000	
조항미	10,000	박귀순	10,000	이춘삼	10,000	정태현	50,000	김선명	5,000	박민선	20,000	김진영	20,000	서정숙	10,000	서정숙	10,000	양필복	10,000	이재환	20,000	이재환	10,000	장선영	10,000	조승희	10,000	
조형준	10,000	박만승	10,000	이한택	10,000			김선창	10,000	박병무	10,000	김진현	10,000	서정희	10,000	서정희	10,000	양해준	10,000	이기원	10,000	이재희	5,000	장순천	10,000	조신행	5,000	
치관스님	5,000	박미라	5,000	이현숙	10,000	싸이월드 50명		김선희	10,000	박병성	30,000	김진현	9,000	서희정	10,000	서희정	10,000	어용철	5,000	이기호	10,000	이정수	10,000	장영달	30,000	조연희	5,000	
차복소	10,000	박미소	10,000	익산호요양병원	10,000	해피민 4명	70,100	김설자	10,000	박병우	10,000	김창연	10,000	선영숙	5,000	선영숙	5,000	엄용수	20,000	이기화	10,000	이정숙	10,000	장용수	10,000	조영상	10,000	
채귀선	30,000	박봉수	10,000	임규윤	5,000			김철성	20,000	박복영	10,000	김창연	10,000	선정한	42,000	선정한	42,000	염동현	10,000	이길호	5,000	이정식	50,000	장원식	10,000	조영석	10,000	
채수덕	10,000	박용수	5,000	임미옥	10,000			김현무	5,000	박성권	10,000	김태성	10,000	성낙준	5,000	성낙준	5,000	염 철	50,000	이남재	5,000	이정주	10,000	장유경	10,000	조영식	10,000	
채우혁	10,000	박용주	5,000	장수필	5,000			권현진	10,000	박상욱	50,000	김태순	20,000	성열찬	10,000	성열찬	10,000	오계환	10,000	이정철	5,000	이창현	10,000	오계환	10,000	조승진	10,000	
최승기	10,000	박윤선	10,000	장오식	10,000			김성오	5,000	박상일	20,000	김태우	10,000	소중섭	10,000	소중섭	10,000	오두영	10,000	이대식	10,000	이정희	5,000	장재영	10,000	조 윤	5,000	
한국화학연구원		박윤훈	10,000	전기철	5,000	4월		김학성	10,000	박선숙	5,000	김학성	10,000	오만소	10,000	오만소	10,000	오만소	30,000	이대호	10,000	이중권	20,000	장춘용	10,000	조윤근	10,000	
	80,000	박인곤	10,000	전병희	5,000	(주)대용파마	20,000	김희식	30,000	박성기	20,000	김학진	10,000	오문택	50,000	오문택	50,000	오선연	5,000	이동영	10,000	이중규	10,000	장형수	10,000	조승원	30,000	
현중스님	10,000	박중섭	10,000	전중만	10,000	(주)모아나	20,000	김학철	10,000	박성준	10,000	김학진	10,000	오선연	5,000	오선연	5,000	이동원	10,000	이동원	10,000	이중규	10,000	전달수	10,000	조재호	10,000	
환성스님	50,000	박중호	20,000	전한소	10,000	(주)세신산업개발	20,000	김성희	5,000	박성찬	10,000	김해중	5,000	손덕현	20,000	손덕현	20,000	오성수	20,000	이동원	10,000	이중무	10,000	전미란	5,000	조정소	10,000	
황성우	50,000	박중호	10,000	정광례	5,000	(주)삼성피워일렉트릭	20,000	김소영	10,000	박사회	10,000	김현성	10,000	손영주	10,000	손영주	10,000	오세호	10,000	이동호	10,000	이종민	5,000	전병태	10,000	조준혁	10,000	
		박주환	5,000	정광수	5,000	(주)세신산업개발	20,000	김소희	10,000	박수진	10,000	김현우	30,000	손준호	10,000	손준호	10,000	오수형	10,000	이명수	5,000	이종민	5,000	전성관	10,000	조종식	10,000	
홍천목아원		박찬식	5,000	정기은	5,000	(주)세신산업개발	20,000	김수경	10,000	박 순	10,000	김현철	10,000	손진택	10,000	손진택	10,000	오영애	10,000	이목희	10,000	이종식	30,000	전성희	10,000	조창식	10,000	
(유)명건설	10,000	박태신	10,000	정동춘	5,000	(주)신도데이터통신	100,000	김수람	10,000	박순성	10,000	김형규	20,000	손총렬	20,000	손총렬	20,000	오정규	10,000	이우철	10,000	이종만	20,000	전영미	10,000	조태현	5,000	
(유)세화관광여행사		박홍열	10,000	정동학	5,000	(주)신도데이터통신	100,000	김순숙	10,000	박애스더	50,000	김형중	5,000	송경민	20,000	송경민	20,000	오정진	20,000	이미래	5,000	이종열	20,000	전영일	10,000	조한민	10,000	
(유)스마일기획건설	20,000	배동한	10,000	정수범	10,000	(주)여행이아기	10,000	김순환	10,000	박영근	20,000	김해소	10,000	송두현	30,000	송두현	30,000	오준호	10,000	이민영	10,000	이중수	5,000	전일순	10,000	조한범	10,000	
	20,000	배성희	20,000	정아름	5,000	(주)저렴종합건축사	20,000	김진희	10,000	박영철	10,000	김홍일	20,000	송상욱	10,000	송상욱	10,000	오창욱	10,000	이민영	10,000	이중수	20,000	전일승	10,000	조해기	5,000	
강동혁	5,000	배인선	5,000	정중현	20,000	(주)청이엔지	10,000	김계소	5,000	김형태	10,000	김해소	10,000	송영환	10,000	송영환	10,000	오혜근	5,000	이병교	10,000	이종열	10,000	전정희	5,000	조현영	10,000	
강병수	10,000	석상근	10,000	정진철	5,000	(주)한얼	50,000	김영미	10,000	김우경	10,000	김홍태	10,000	송운학	20,000	송운학	20,000	왕정찬	5,000	이병동	10,000	이지영	10,000	정중수	20,000	조현호	20,000	
강신우	5,000	성도경	5,000	정해철	5,000	(주)한얼	50,000	김영수	10,000	박원규	10,000	김희근	20,000	송은지	10,000	송은지	10,000	왕진호	10,000	이상재	10,000	이지원	20,000	정경옥	3,000	주관수	10,000	
강철희	10,000	소병재	5,000	정희선	10,000	김복조	5,000	김광아	20,000	박월상	1,000,000	김희중	10,000	송재서	10,000	송재서	10,000	우성호	10,000	이상주	30,000	이지하	5,000	정경옥	3,000	주관수	10,000	
강태순	20,000	손삼구	10,000	정흥귀	10,000	강경조	20,000	김광진	10,000	박유중	10,000	나선길	10,000	송재용	10,000	송재용	10,000	우정호	10,000	이상학	10,000	이진하	10,000	정경훈	10,000	주로미	5,000	
강혜영	5,000	송방섭	5,000	조기원	10,000	강경현	10,000	김구철	10,000	박은하	5,000	나원연	20,000	송재은	10,000	송재은	10,000	우해진	5,000	이상호	20,000	이진섭	10,000	정기섭	10,000	주재열	10,000	
고진규	10,000	송인규	10,000	조기용	20,000	강남호	10,000	김구현	10,000	박의용	10,000	나은우	20,000	송재천	10,000	송재천	10,000	원동우	10,000	이성훈	10,000	이차남	10,000	정근영	10,000	주현기	10,000	
곽영한	10,000	신민수	5,000	조봉관	10,000	강달호	10,000	김근우	30,000	박이현	20,000	남성돈	10,000	원종남	10,000	원종남	10,000	원동우	10,000	이석	10,000	이천우	10,000	정기석	5,000	주희욱	5,000	
국 혁	5,000	신범선	10,000	조성탁	20,000	강대영	500,000	김금순	이호준	50,000	김인숙	5,000	남세현	5,000	원효진	10,000	원효진	10,000	원효진	10,000	이석우	10,000	이천중	10,000	정기연	20,000	지선경	5,000
권태영	10,000	안귀녀	5,000	조승훈	5,000	강동완	20,000	김광평	25,000	박재국	10,000	남정현	10,000	송정배	10,000	송정배	10,000	유근호	30,000	이석준	10,000	이창재	10,000	정명준	20,000	지용수	50,000	
김강희	5,000	안현성	5,000	조용원	50,000	강문구	50,000	김기용	30,000	박재원	10,000	노관수	10,000	송지섭	10,000	송지섭	10,000	유명희	5,000	이 선	10,000	이창훈	10,000	정미란	10,000	지준호	10,000	
김간태	5,000	양갑석	10,000	조우영	10,000	강보향	10,000	김용현	10,000	박정근	50,000	노금호	10,000	송현태	30,000	송현태	30,000	유명희	5,000	이선규	10,000	이진환	30,000	정미영	10,000	진상호	10,000	
김경년	10,000	양경진	5,000	조주원	5,000	강선미	5,000	김용희	5,000	박정란	10,000	노승일	10,000	신강호	30,000	신강호	30,000	유성식	10,000	이선주	10,000	이종욱	5,000	정민	5,000	진은정	20,000	
김공연	5,000	오동훈	5,000	조지현	5,000	강성미	10,000	김우영	20,000	박정숙	10,000	노인선	20,000	신기호	10,000	신기호	10,000	유성주	50,000	이선호	5,000	이태주	10,000	정성모	10,000	차익수	10,000	
김규진	5,000	오명섭	5,000	주세균	50,000	강성구	10,000	김우전	10,000	박정우	10,000	노정환	20,000	신기화	50,000	신기화	50,000	유승철	10,000	이선화	10,000	이행동	10,000	정상원	10,000	차원애	10,000	
김근소	10,000	옥용호																										

후원자 명단

최태자 5,000	최지은 5,000	조형준 10,000	문태환 5,000	이춘삼 10,000	권철성 20,000	김성철 10,000	김해중 5,000	박성찬 10,000	송두현 30,000	오해근 5,000	이민영 10,000	이지하 5,000
최희송 10,000	하소민 5,000	(주)고려정보통신 4,000,000	민총기 10,000	이한택 10,000	권현진 10,000	김성희 5,000	김현성 10,000	박소희 10,000	송상윤 10,000	왕정찬 5,000	이 병 10,000	이진권 10,000
추승기 3,000			박귀순 10,000	이현숙 10,000	금강산닷컴(주) 10,000	김세권 5,000	김현수 10,000	박수진 10,000	송영환 10,000	왕진호 10,000	이병도 10,000	이진석 10,000
포항수산(자)이흥대 20,000	아동급식	진관스님 5,000	박민순 10,000	익산효양병원 10,000	금취식 30,000	김소영 10,000	김현준 30,000	박 순 10,000	송은학 20,000	우선호 10,000	이병호 10,000	이치남 10,000
하미정 10,000	강대현 20,000	차복순 10,000	박미라 5,000	임규윤 5,000	길가관 10,000	김소희 10,000	김현진 10,000	박순성 10,000	송재용 10,000	우종호 10,000	이상재 10,000	이찬우 10,000
하승창 20,000	강병태 20,000	채수덕 10,000	박미숙 10,000	장승필 5,000	김창배 10,000	김수암 10,000	김현철 10,000	박애스더 50,000	송재은 10,000	우혜진 5,000	이상주 30,000	이찬용 10,000
한복희 30,000	강은향 30,000	채우혁 10,000	박봉수 10,000	장오식 10,000	김형중 10,000	김순옥 10,000	김형철 5,000	송재천 20,000	송재천 10,000	원동오 10,000	이상학 10,000	이찬재 10,000
한다현 10,000	광주지방국세청 7,500	최승기 10,000	박용수 5,000	전기철 5,000	김강민 30,000	김신희 10,000	김해순 10,000	박영철 10,000	송재천 10,000	원종남 10,000	이상호 20,000	이창훈 10,000
한대영 10,000	권영은 20,000	코리아S참소년 2,000,000	박용주 5,000	전병희 5,000	김강훈 10,000	김양수 10,000	김호일 20,000	박요순 10,000	송정배 10,000	원호진 10,000	이상훈 10,000	이재민 10,000
한덕섭 20,000	김기열 10,000	한국화학연구원 80,000	박윤선 10,000	전중만 10,000	김경태 10,000	김영모 20,000	김효정 10,000	박용권 20,000	송정호 10,000	유근호 30,000	이천규 10,000	이천환 30,000
한덕희 15,000	김만호 20,000	현중스님 10,000	박윤훈 10,000	전한순 10,000	김경태 10,000	김영수 10,000	김희곤 20,000	박우경 10,000	송지섭 10,000	유남길 20,000	이선주 10,000	이충목 5,000
한동희 30,000	김명수 10,000	홍헌기 10,000	박인근 10,000	정광래 5,000	김경화 10,000	김영실 20,000	김희중 10,000	박원규 10,000	송태규 10,000	유영희 5,000	이선호 5,000	이태주 10,000
한두희 10,000	김봉림 30,000	환성스님 50,000	박종섭 10,000	정광수 5,000	김경화 5,000	김영주 10,000	나병만 10,000	박월삼 1,000,000	송현태 30,000	유병주 10,000	이성민 10,000	이팔원 10,000
한방남 10,000	김소영 10,000	황성스님 50,000	박종호 20,000	정기운 5,000	김계순 10,000	김영표 10,000	나선길 10,000	박은하 5,000	신기호 10,000	유성식 10,000	이성수 5,000	이해동 10,000
한상규 5,000	김순남 50,000	황성우 50,000	박종호 10,000	정동춘 5,000	김계순 5,000	김영호 5,000	이은우 20,000	박의용 10,000	신기훈 10,000	유승주 50,000	이성주 10,000	이현경 20,000
한성희 5,000	김용화 5,000		박주환 5,000	정동학 5,000	김관식 20,000	김완배 20,000	남성돈 10,000	박이현 20,000	신대길 10,000	유승철 10,000	이성주 10,000	이현성 10,000
한순호 5,000	김우중 20,000	홍천음악인	박찬민 10,000	정영환 5,000	김광아 20,000	김영덕 30,000	남세현 5,000	박인숙 30,000	신동석 10,000	유시민 10,000	이성철 10,000	이현숙 100,000
한승엽 10,000	김정미 10,000	(유)영간실 10,000	박찬식 10,000	정병환 30,000	(주)여행이야기 10,000	김용현 10,000	남정현 10,000	박재욱 10,000	신동창 20,000	유희희 10,000	이성호 5,000	이현숙 5,000
한영숙 10,000	김정은 10,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박태신 10,000	정수범 10,000	(주)차이앤지 20,000	김우영 20,000	노관숙 10,000	박재원 10,000	신상문 5,000	유윤숙 5,000	이세준 20,000	이현우 20,000
한윤구 10,000	김진현 5,000		박용열 10,000	정영미 5,000	(주)한일 50,000	김우현 10,000	노은일 10,000	박정란 10,000	신수익 10,000	유인숙 10,000	이숙자 5,000	이현주 20,000
한인숙 5,000	김종오 10,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1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인선 2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승주 10,000	이수희 5,000	이태남 5,000
한정화 10,000	김태평 10,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정환 2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한진옥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한창현 5,000	김해경 10,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함용운 5,000	김해경 10,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하남순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하원종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하은이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허 일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허관송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현순복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현윤숙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현윤식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현윤실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현윤애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현종윤 4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호영진 1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구표 3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기호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민희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면기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명석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미옥 3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상운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성건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성복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성현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속희 2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 의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홍준석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계연 10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대철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명필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병태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상욱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성주 3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재성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중철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황창규 10,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JINHONGMEI 5,000	김현수 5,000		배동한 10,000	정종원 20,000	김복조 5,000	김원근 10,000	노재승 10,000	박정숙 10,000	신영문 20,000	유지수 8,500	이수철 10,000	이태욱 10,000
LG CNS 1,190,000	김현수 5,000</											

전일순	10,000	주로미	5,000	홍영진	15,000	문주성	10,000	국 혁	5,000	양경진	5,000	지태석	5,000
전정수	10,000	주재열	10,000	홍구표	30,000	박나정	25,000	김강희	5,000	옥홍호	10,000	최규원	5,000
전정희	5,000	주현기	10,000	홍기호	10,000	박미경	20,000	김건태	5,000	우광택	50,000	최기근	5,000
전종수	20,000	주희옥	5,000	홍관희	5,000	박백운	20,000	김경년	10,000	원형복	10,000	최낙근	10,000
전채남	10,000	지선경	5,000	홍면기	10,000	박상일	10,000	김공연	5,000	유방용	5,000	최병희	10,000
전향이	10,000	지용수	50,000	홍명석	5,000	박재완	10,000	김규진	5,000	유병철	5,000	최양옥	20,000
전 훈	5,000	진상호	10,000	홍미옥	30,000	박재순	30,000	김근순	10,000	유재욱	5,000	최영자	10,000
정경옥	3,000	차익수	10,000	홍상운	5,000	박종근	10,000	김기근	5,000	유항덕	5,000	최용식	20,000
정경훈	10,000	차현애	10,000	홍성건	10,000	박해영	10,000	김기동	10,000	유화권	5,000	최우진	20,000
정 근	10,000	차형철	20,000	홍성복	10,000	배인기	20,000	김동림	20,000	육근범	10,000	최을규	10,000
정근영	10,000	채병철	10,000	홍숙희	20,000	백마숙	30,000	김동우	50,000	윤엄석	10,000	최인엽	10,000
정기석	5,000	채현숙	5,000	홍 의	10,000	서완식	10,000	김문현	10,000	이강찬	5,000	최재문	10,000
정기언	20,000	천봉실	10,000	홍재표	10,000	서희순	10,000	김봉규	10,000	이경래	10,000	최종대	5,000
정명준	20,000	천정배	15,000	홍준석	10,000	송용석	10,000	김삼택	5,000	아규문	10,000	최종철	5,000
정미란	10,000	천환주	10,000	홍희표	10,000	심경옥	10,000	김성리	5,000	이금림	10,000	최준수	10,000
정미영	10,000	최경인	10,000	황계연	100,000	심재원	10,000	김성도	10,000	이기훈	5,000	탁도용	5,000
정 민	5,000	최덕환	40,000	황대철	10,000	심재정	10,000	김수경	10,000	이남희	5,000	탁병성	20,000
정상모	10,000	최문석	50,000	황명필	10,000	안호진	30,000	김수복	10,000	이명환	10,000	푸른초장교회	
정상원	10,000	최병문	10,000	황병태	10,000	양화식	10,000	김영규	20,000	이민성	5,000	(동순두 목사)	30,000
정석만	10,000	최병희	20,000	황상욱	10,000	안효정	10,000	김영균	5,000	이병학	5,000	하중영	10,000
정수현	5,000	최사라	10,000	황상주	30,000	오동일	20,000	김영주	10,000	이상업	5,000	한상민	10,000
정수희	5,000	최상훈	10,000	황재성	10,000	오승현	30,000	김윤철	10,000	이상준	5,000	한상진	5,000
정승혜	20,000	최세문	20,000	황중철	10,000	오이경	10,000	김은재	10,000	이석준	10,000	함기문	10,000
정연용	10,000	최수진	5,000	황창규	10,000	위은아	10,000	김은곤	10,000	이성기	5,000	허귀서	10,000
정연준	20,000	최순옥	10,000	jinhongmei	5,000	유명량	10,000	김정기	10,000	이양재	10,000	허 정	5,000
정연호	20,000	최승호	10,000			유연미	10,000	김정인	10,000	이영내	10,000	현정희	10,000
정영철	10,000	최승호	10,000	불교그라운드		윤원희	30,000	김종비	5,000	이영수	10,000	홍성각	10,000
정우진	20,000	최영림	10,000	강대균	10,000	윤지현	10,000	김종성	10,000	이영숙	5,000	홍성근	20,000
정원오	10,000	최영순	5,000	김선경	10,000	이미옥	10,000	김종열	5,000	이영환	5,000	황병규	10,000
정은미	5,000	최영희	10,000	김재기	10,000	이병진	10,000	김종왕	5,000	이영희	5,000	황영송	10,000
정은진	20,000	최우정	10,000	김지연	10,000	이영동	10,000	김찬산	5,000	이용범	10,000	황지중	5,000
정인성	10,000	최윤식	5,000	김희정	5,000	이영선	10,000	김진관	20,000	이용연	10,000	황현택	20,000
정인준	50,000	최은서	5,000	나선경	5,000	이정미	10,000	김진태	10,000	이윤관	5,000		
정재민	10,000	최인구	100,000	박인준	20,000	이정실	10,000	김창영	10,000	이점윤	10,000		
정재원	10,000	최재천	100,000	방철호	20,000	이정학	20,000	김태환	5,000	이정식	10,000	강성구	30,000
정재환	100,000	최정길	30,000	심현용	10,000	이재현	10,000	김형제	10,000	이종민	10,000	박선오	30,000
정정태	10,000	최정희	10,000	이동현	10,000	이지운	10,000	김형순	20,000	이종성	10,000	이용선	50,000
정중현	10,000	최주리	10,000	이한걸	10,000	이준도	10,000	김호식	10,000	이주형	5,000	이재형	100,000
정지현	10,000	최진욱	10,000	이현솔	5,000	이현재	10,000	남정현	10,000	이지용	5,000	정태현	50,000
정진영	10,000	최진원	10,000	이혜경	30,000	이태경	30,000	남궁진석	5,000	이진탁	10,000		
정찬광	10,000	최철영	10,000	임문희	10,000	임문희	10,000	남상기	10,000	이준삼	10,000	사이월드 45명	26,400
정천우	10,000	최태자	5,000	장범식	10,000	장범식	10,000	남청강	10,000	이한택	10,000	해피빈 9명	65,600
정태규	5,000	최희송	10,000	정동혁	10,000	정동혁	10,000	류희용	10,000	이현숙	10,000		
정하영	10,000	추솔기	3,000	정성희	5,000	정성희	5,000	문홍식	5,000	익산효요양병원	10,000		
정한성	5,000	표항수(선자) 이흥대		정수준	5,000	민창기	10,000	민창기	10,000	임규윤	5,000		
정해문	10,000			강대현	20,000	정이훈	10,000	박기순	10,000	장수필	5,000		
정홍상	10,000	허미정	10,000	강병태	20,000	정후진	10,000	박만승	10,000	장오식	10,000		
정희범	10,000	하승창	20,000	강은향	30,000	조은상	30,000	박미라	5,000	전기철	5,000		
조갑식	10,000	한녹희	30,000	광주국세청	7,500	조은희	20,000	박미숙	10,000	전병희	5,000		
조대엽	20,000	한다현	10,000	권영운	20,000	조정아	20,000	박봉수	10,000	전종만	10,000		
조만용	5,000	한덕섭	20,000	김경표	10,000	조함미	10,000	박용수	5,000	전한순	10,000		
조매경	5,000	한덕희	15,000	김기열	10,000	조형준	10,000	박용주	5,000	정광례	5,000		
조석희	10,000	한동휘	30,000	김만호	20,000	(주)고려정보통신	800,000	박윤선	10,000	정광수	5,000		
조선영	10,000	한두희	10,000	김명수	10,000	진관스님	5,000	박인곤	10,000	정기운	5,000		
조선옥	10,000	한방남	10,000	김봉림	30,000	차복순	10,000	박종섭	10,000	정동춘	5,000		
조성규	10,000	한상균	5,000	김소영	10,000	채귀신	30,000	박종호	20,000	정동학	5,000		
조성호	20,000	한성희	5,000	김순남	50,000	채수덕	10,000	박종호	10,000	정명환	5,000		
조성희	10,000	한순호	5,000	김연옥	30,000	채우혁	10,000	박주환	5,000	정아름	5,000		
조신행	5,000	한승엽	10,000	김용재	10,000	한국화학연구원	80,000	박찬민	10,000	정영미	5,000		
조연희	5,000	한영숙	10,000	김용화	5,000	현중스님	10,000	박찬식	5,000	정인규	5,000		
조영상	10,000	한윤구	10,000	김우중	20,000	환승스님	50,000	박태신	10,000	정종원	10,000		
조영석	10,000	한정화	10,000	김정미	10,000	황성우	50,000	박종열	10,000	정종권	20,000		
조영식	10,000	한진옥	5,000	김정은	10,000			배동한	10,000	정진철	5,000		
조영진	10,000	한창현	5,000	김진경	20,000			배신규	10,000	정해렬	5,000		
조윤근	10,000	함영준	20,000	김진현	5,000			배성희	20,000	정홍귀	10,000		
조윤경	30,000	함용은	5,000	김종오	10,000	통천음악인		방인섭	5,000	조가원	10,000		
조재호	10,000	허남순	5,000	김태평	10,000	(유)명간설	10,000	석상근	10,000	조가용	20,000		
조정순	10,000	허원중	10,000	김현수	5,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성안호	5,000	조봉관	10,000		
조준혁	10,000	허은이	10,000	김형수	50,000			소병재	5,000	조성택	20,000		
조중식	10,000	허 일	10,000	김혜경	10,000	강동혁	5,000	손삼국	10,000	조승훈	5,000		
조창식	10,000	현관송	10,000	노승일	10,000	강병수	10,000	송민규	5,000	조용권	50,000		
조태현	5,000	현순복	5,000	대전둔광성결교회	26,000	강신우	5,000	송방섭	5,000	조우영	10,000		
조한민	10,000	현윤숙	10,000	도규현	30,000	강철희	10,000	송인규	10,000	조주원	5,000		
조한범	10,000	현윤식	10,000	류연석	10,000	강태순	20,000	신민수	5,000	조지현	5,000		
조현영	10,000	현윤실	10,000	문 민	5,000	강혜영	5,000	신범선	10,000	주송순	5,000		
조현호	20,000	현윤애	10,000	문성욱	20,000	고진규	10,000	안귀녀	5,000	주영식	10,000		
조형준	20,000	현종윤	40,000			곽영한	10,000	안현성	5,000	주원섭	5,000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나눔 메신저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5곳에 아동급식 물자 전달



정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아이들에게 가는 남측의 사랑이 담긴 희망트럭은 중국 도문, 함북 온성 간 국경을 넘어 아이들에게로 달립니다. 사랑과 희망이 전달됩니다.

지난 5월 27일 희망트럭은 콩기름, 라면, 사탕 등 800만원 상당의 급식물자를 싣고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을 유치원,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종축장 유치원, 왕재산리 유치원, 농장 유치원 5곳에 전달하였습니다. 작년 6월 19일, 첫 아동급식 지원을 시작한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은 북한의 최북단 변경지역으로 다른

지역 보다 식량 보급률이 열악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매월 정기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트럭은 북측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남측 후원자님의 나눔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고비, 고사리, 목이버섯 등을 보내와 후원자님들과 훈훈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북한 아동급식 지원은 아이들 뿐 아닌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 메신저인 셈입니다.

북한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나눔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과 나눔의 메신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 전화 02)734-7070 ksmseoul@ksm.or.kr 담당 - 자원개발팀 오형운 간사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상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가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부회장 단체로 소속되어있고 56개 대북인도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회장 정정섭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남북관계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북민협 소속 단체들은 4월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정부의 방북 및 물자반출 차단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심각한 존폐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한 방북 및 물자 반출 불허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정섭 북민협 회장은 "인도적 대북지원중단이 '북한 길들이기 수단'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정당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즉각적 대화와 실천적 조치들의 진행"과 함께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선별 승인과 민간단체 모니터링 방북 불허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을 믿어요!”

어둠속 터널을 지난 후 밝은 세상,
장마비 그치면 나타나는 햇살과 하늘,
아무도 이 희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 걸어온 13년,
그 길이 희망이기에 우리는 이 길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